

화 해 의 사 람 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85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이곳 흑인 지역인 필리피 (Philippi) 지역에 있는 필리피 가스펠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 주일 아침에 어린이 교회사역도 하고 매 달 한번씩 순회 설교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입니다. 신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성경공부 경험도 전혀 없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기에 주일 설교는 목사님의 개인 간증이 거의 전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중심이 되는 그들의 예배는 열정과 간절함이 넘칩니다. 목사님과 많은 리더들이 목회자 훈련에 참여하며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말씀을 배우지만 열정에 비해 드러나는 열매는 참 더듬을 볼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달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때 이들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예배 후 손을 잡고 몇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대할때면 제가 전하는 -우리가 매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아주 새롭고 아주 귀한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교회 성도의 자녀들만 참석하던 어린이 교회도 몇년동안 진행해 오면서 동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함으로 많이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필리피 가스펠교회가 하나님과 말씀중심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목회자 훈련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말씀 중심의 삶과 사역을 이루도록...
2. 그들로 인해 흑인지역의 교회에 말씀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3. 어린이 교회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주 반복해서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도록...
4. 윤성(고2)이의 진로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수현(초2)이가 영육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로 자라도록...
5. 기도중인 비자의 문제에 길을 보이시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도하심을 잘 따라 가도록...

